# 건축문화 사랑

Vol.051 10. FEBRUARY 2014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4. 2 051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528.0026


## 특별인터뷰

목포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선출된
건축학과 최일 교수와의 만남

## 제17회 광주광역시 건축상(주거부문)

금상 : 미가온 빌딩(상)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이순미 건축사
은상 : 청월재(중)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강필서 건축사
동상 : 장덕 J-HOUSE(하)
건축사사무소 에이.작 전승찬 건축사


시론 02
도시문제 해결책으로서의 도시재생 전략 _ 이병훈

특별인터뷰 03
목포대학교 제7대 총장에 선출된 목포대 건축학과 최일 교수와의 만남

작품소개 04–05
제17회 광주광역시 건축상(주거부문 수상작)

동양건축 06
한 · 중 · 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2 _ 5부 ≫ 정원으로 보는 3국 건축 _ 이왕기

특별기고 07
소통과 배려 그리고 용서와 화해 _ 심상봉

NEWS 08～10
광주 · 전남 · 전북 정기총회 안내 / 2014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안내

※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시문제 해결책으로서의 도시재생 전략

이 병 훈 이사장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lbh0318@daum.net

도시는 인간과 사회가 만든 문명의 총화이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구의 경우 현대 이전의 도시들은 산업혁명으로 큰 변화를 갖게 됐고, 이후 인구집중, 도심의 슬럼화, 열악한 주거환경, 그리고 교외지역으로 무질서한 공간 확산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었다.

## 정체성을 갖지 못한 천편일률적인 도시

반면 우리의 경우 도시의 역사가 일천하여 도시의 기본적 인프라 구축과 변화가 뒤섞어져 도시다운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천편일률적 양상을 띠고 있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 풍경과 숫자로 치환되는 자리, 그리고 경관이 고려되지 않는 건축물 등이 그것이다.

광주의 경우를 보면 극명해진다. 용봉지구, 문흥지구, 상무지구, 수완지구 조성 등으로 도시의 외연은 넓어졌으나 상가와 아파트가 줄지어선 가운데 노래방, 유흥주점이 판을 치고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 현실화되기 어려운 원도심 재개발

반면 원도심은 '재개발만이 살길이다'라고 생각하며 수십 개의 재개발 지구 지정이 돼있으나 경제성 때문에 쉽사리 현실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화장실은 불편하고 심지어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 생활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인구는 줄어들어 공·폐가가 늘어나다 보니 밤만 되면 암흑의 도시 그 자체다. 물론 이러한 원도심 낙후현상은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쨌든 같은 지역 내의 신도심과 원도심의 격차는 주민들의 소득 불균형, 주민 공동체 붕괴 현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신도심은 신도심대로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7~80년대부터 문화도시 또는 도시재생이란 기치 하에 변화를 모색해오고 있다.

## 도시문제의 해법은 도시재생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 출구전략'발표 이후 정책의 패러다임이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 만들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2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제 도시문제의 해법은 바로 도시재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부흥 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시설과 콘텐츠의 도입뿐만 아니라 오래된 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재창조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통의 창조는 전통 자체가 지닌 잠재력과 인간의 창의적인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든 문화든 '느린 것', '작은 것', '소외된 것' 에 관심을 기울였을 때 가능하다. 도시형성의 과정도 판이하게 달라진다.

## 주민 참여 · 지역 맞춤형 정책

행정중심의 정책에서 주민 참여형의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도시재생이 이루어진다는 외국의 선진 사례는 우리나라 도시 재생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들 나라의 사례를 통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공통적인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첫째, 도시재생 활성화와 근린재생 전략을 병행해야 하고, 둘째, 다양한 주체의 협력에 의한 거버넌스형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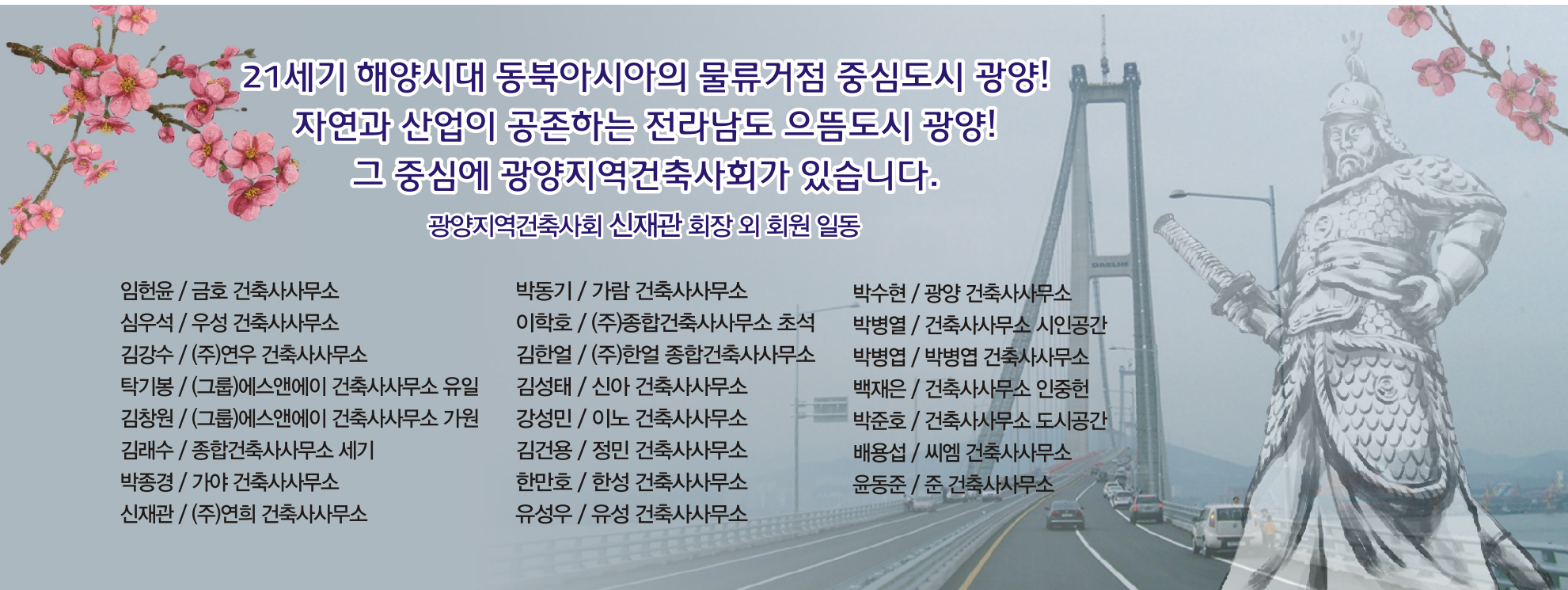
종래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건축, 토목 등 일부 전문가 또는 공무원에 의해 수립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도시 설계 및 집행은 문화적 고려와 문화·예술, 환경 그리고 기술이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참여 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셋째, 국가차원의 전략수립과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 지역의 자생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지역의 자생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실행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내용을 새로운 계획에 수정 반영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 목포대학교 제7대 총장에 선출된 건축학과 최일 교수와의 만남

지난 12월 27일 목포대학교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간선제 총장선거에서 목포대 건축학과 최일 교수가 총장 임용추천위원 34인 중 22인의 표를 획득하여 제7대 총장으로 선출됐다. 이 지역 건축계의 큰 경사이자 앞으로 지역 건축문화가 큰 방향성을 갖고 발전하는 받침돌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4일 서재형 편집인을 비롯한 편집위원들이 최일 교수의 연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시간을 내어준 최일 교수님께 다시금 감사함을 표한다.

## 목포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되신 것에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쁨보단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의 지방 대학은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 하면서 입학정원의 감소와 구조조정이라는 한파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임기 동안은 좋은 여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일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처럼 경제력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노력이 필요한데, 수도권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이 함께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 국립대학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과 책임 등을 중앙정부에 잘 전달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임기 4년간의 총장직 수행기간동안 생각하고 계시는 학교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목포대학교는 규모가 작은 지방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대학은 교육중심의 대학으로 특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교육함으로써 좋은 직장에 취업도 잘 되고 맡은 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또 하나, 대학은 지역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로써 책임이 있는 조직입니다. 300명이 넘는 박사가 있는 조직은 대학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시켜 지방정부의 좋은 협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뒷바라지를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라 생각하고 4년간 학교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지방대학의 역량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유치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측면에서 왜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이 필요한지를 정부에 역설할 예정입니다. 유치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서서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건축을 전공하신 학자로서 건축 관련 학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건축과로만 국한해서는 곤란합니다만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대학은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전라남도가 장려하는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옥은 워낙 고가형이라 미국이나 일본처럼 보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목조 주택형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 대학의 건축관련학과가 특화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목재수입은 거의 인천항으로 몰려 있는데 목포신항을 목재수입항 활용하고 목포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우리대학이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상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학자로서 걸어오신 길(학업 과정/연구 내용 및 관심 분야 등)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처음 교수직을 수행했던 곳은 울산대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목포대학교에 건축학과가 개설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내 지역에 돌아가 봉사를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목포대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전공분야가 설계여서 지금도 가끔 건축사님들과 교류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상류주택(양반집)에 관한 연구였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건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적인 특성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며 설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목조건축에 대한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허나 이제는 다른 길(총장직)을 걷게 되어 연구에 몰두할 수는 없지만 후배교수님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 목조건축분야를 여러 번 언급 하셨는데 목포대학교가 그 분야를 특성화하려는 노력에 대해...

한옥은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목조 건축은 자재들을 공장 생산 한다면 인건비와 자재비 등이 절약되어 건축비가 상당히 낮아질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요소들도 많고, 저층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촌주택분야 에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옥이나 목조건축분야는 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 대학에 흙 분야의 권위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살려 특성화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 노력과 경험을 토대로 확립하신 건축 학자로서의 철학은?

철학이라고 하기 보다는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전통건축분야를 꾸준히 연구하여 지역적인 특성들이 디자인과 공간에 반영(장소성 등)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역적인 전통성을 지키고 지역적인 특색을 가진 건축작품들을 설계하는 지역대학의 건축학과들이 자생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 건축인들에게 한마디...

건축학계나 업계나 다들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어려운 현실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하지 않아 자초한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분야는 모든 산업의 토탈 분야인데 대부분 설계도서를 제작하는 일에만 건축사의 업무를 한정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디자인의 모든 중심이 건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자동차를 더불어 의류산업까지 건축인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업역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야에 관심을 두고 학업에 정진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가령 도시설계 분야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건축사의 업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도시설계에 대한 안목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 또한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신 말씀...

올해 3월부터 4년간 총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감정 변화가 크지 않아 아직은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기쁨보단 막중한 책임감이 듭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수없이 고민 하고 있지만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위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며 이번 자리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무대인만큼 우리대학과 우리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인터뷰 : 서재형 편집인, 백재봉, 김미영 건축사기자 / 정리 : 곽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목포대학교 제7대 총장 당선인' 건축학과 최일 교수

▣학력
광주일고 졸업 서울대학교 학사 및 석·박사 학위 취득

▣전공
건축계획/설계

▣경력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및 공과대학장 역임
국토해양부 중앙건축위원회위원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
청와대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
여수EXPO 조직위원회 위원
한국건축설계교수회 이사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
한국교육시설학회 편집위원
대한건축학회 편집위원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 상임논문심사위원
테크노파크센터 소장
국무총리실 서남권 낙후지역투자촉진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 활동

▣현재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 이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실사위원
한국건축설계교수회 참여이사
전남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전남개발공사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목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사업협의회 위원 등

〈목포대학교 총장 출마시 제시한 4대 공약〉
①대학내 구성원 모두의 뜻을 받들고 섬기는 총장, 행복지수를 한층 더 높이는 섬기는 총장
②대학 내 · 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역사회와 상생 · 협력하는 튼튼한 대학의 기초를 만드는 총장
③목포대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총장
④총장으로서의 도리를 묻고 고민하며 실천하고, 자랑스럽게 물러나는 총장

▲ 지난 2월 4일 진행된 편집위원들과의 인터뷰에서 최일 교수는 향후 4년간 이끌어갈 목포대학교의 비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 최일 교수가 건축 설계에 참여한 대표작품들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문화예술회관 / 설계자 : 박홍근 건축사((주)포유 건축사사무소)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aaforyou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 전라남도 나주시 동신대학교 사회과학관

광주광역시는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와 건축물을 선정 시상하여 사기진작과 건축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만들기" 시책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7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을 선정 발표하였다.

주거부문

| | | |
|---|---|---|
| 금상 : 미가온빌딩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 이순미 건축사 |
| 은상 : 청월재 | (주)공간동인건축사사무소 | 강필서 건축사 |
| 동상 : 장덕 J-HOUSE | 건축사사무소 에이작 | 전승찬 건축사 |

# 제17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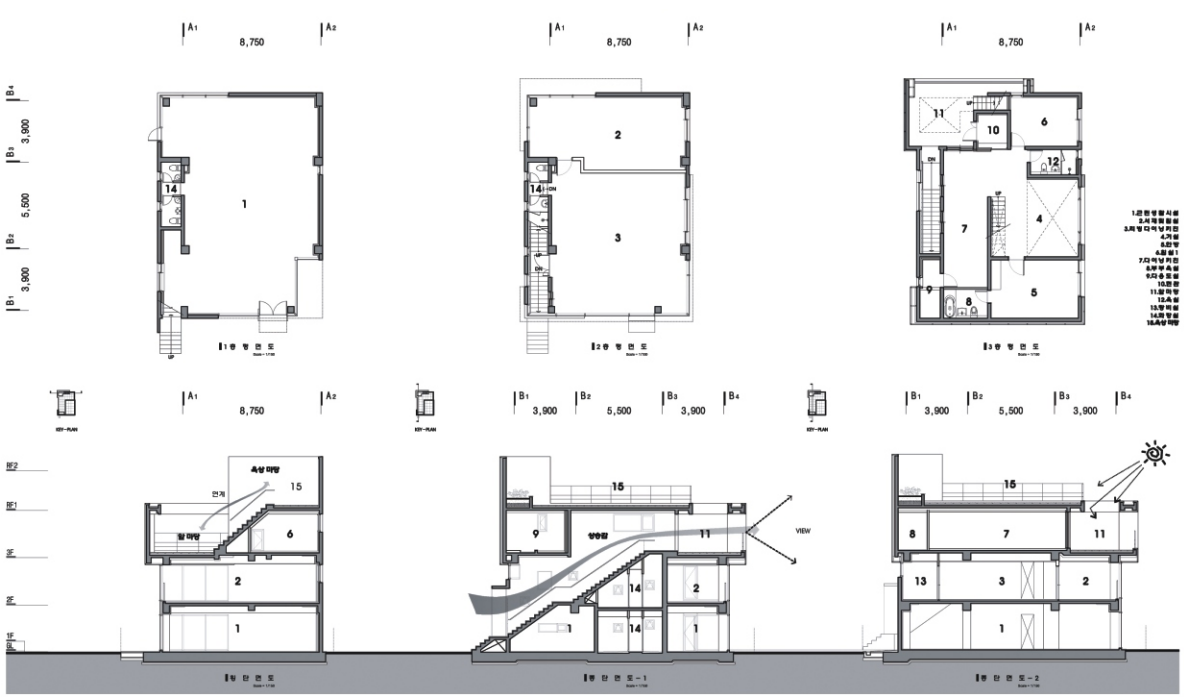
## 주거부문 금 상 미가온빌딩

이순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 지 면 적 : 241.90㎡
용 도 :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건 축 면 적 : 144.52㎡
연 면 적 : 359.28㎡
주 요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송판노출콘크리트,T0.7VM징크, T43투명3중로이유리

## 계획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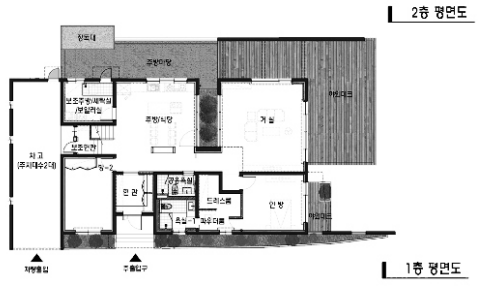
무등산 국립공원 자락에 접해있는 이 대지는 도심속의 자연 이라는 현대도시 인들이 가장 동경하는 주거와 휴양 모두를 만족시킬수 있는 환경을 가진 이상적 장소이다. 사각의 형태를 가진 대지형태속에서 건축물은 대지형태의 경계선을 따라 배치됨으로써 주변자연환경의 형태적 맥락과 동질적 조화를 구성하려는 설계의도와 자연스럽게 일치된다.
이로써 이집의 외부공간은 원경과 연장된 안마당, 옥상정원이 순환하는 외부공간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작은 다락과 주택을 분리배치함으로써 그 사이에 발생한 중성적 외부공간은 진입의 과정공간이며 안마당과 옥상 정원을 연결하는 소통의 장소인 동시에 외부공간의 기능을 하게 된다.
실내 주요공적공간들인 거실, 식당, 브리지, 침실들은 모두 시각적으로 상호 소통되며 서로가 서로의 풍경이 되도록 계획 되었으며 넓은 창과 앞마당과 연장된 옥상정원등의 자연 풍경들과 결합되는 회화적 풍경은 이대지의 환경과 건축의 관계가 만들어 주는 대표적인 공간적 성격이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건축상은 1989년부터 시작되어 17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선정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거부분과 비주거 부분으로 나누어 시상하게 된다. 제17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주거부분에는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이순미 건축사가 설계한 미가온 빌딩이 영예의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강필서 건축사의 청월재가 은상에 선정됨을 비롯해 건축사사무소 에이작 전승찬 건축사의 장덕 J-HOUSE가 동상에 선정되었다. 수상자들은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촉시 우선위촉과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사유발생시 1회 경감 조치의 특전을 받게 된다.

## 주거부문 은 상 청월재

### 강필서 건축사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 비주거부문 동 상 장덕 J-HOUSE

### 전승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에이작

#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2_ 5부

## ≫ 정원으로 보는 3국 건축

이왕기 교수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Leewk@mokwon.ac.kr

2–1부 : 마당으로 보는 3국 건축 – 2013년 10월 게재
2–2부 : 창호(窓戶)로 보는 3국 건축 – 2013년 11월 게재
2–3부 : 건축 속의 물 – 2013년 12월 게재
2–4부 : 지붕으로 보는 3국 건축 – 2014년 1월
2–5부 : 정원으로 보는 3국 건축– 2014년 2월

※이왕기 교수의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 1편은 2013년 2월(39호)부터 2013년 6월(43호)까지 연재되었음을 밝혀둔다.

대전에 위치한 목원대학교 건축학부의 이왕기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건축역사학자이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의 건축역사까지... 동양 건축史에 대해 전문가로서 비교 분석한 내용을 본지에 연재코자 한다.

정원은 곧 자연의 또 다른 표현물이다. 서양에서 자연은 탐구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에 비해 동양에서는 자연을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했다. 즉 자연의 이치는 초인간적인 가장 숭고한 현상이다.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서 자연 속에 건축을 넣기도 하고, 건축 속에 자연경관을 만들어 두기도 하였다. 인간과 자연과 건축이 하나의 개념 속에 들어 있어야 완벽한 하나의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건축에 응용하여 건축이 자연과 하나됨으로써 천인합일(天人合一)의 도(道)에 이른다고 생각하였다.

정원(庭園)은 뜰을 이용해 동산을 만든 것을 말한다. 정(庭)은 뜰을 뜻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집안에 있는 작은 마당을 의미한다. 원(園)은 울타리를 친 한정된 곳을 말하지만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 두 용어가 조합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원을 뜻하게 된 것이다. 정원은 인류가 스스로 집을 짓고 주변을 꾸미는 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생존하기 위한 시설로 울타리를 만들고 식물을 심고, 물을 끌어들였으나 차츰 의미가 더해져 인간의 사유체계를 표현하게 되었다. 정원은 하나의 집단이 오랫동안 한 지역에 거주해 오면서 그 지역의 기후, 생식조건, 종교, 관습, 생산재료가 만들어낸 표현결과이다.

정원은 곧 자연의 또 다른 표현물이다. 서양에서 자연은 탐구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에 비해 동양에서는 자연을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했다. 즉 자연의 이치는 초인간적인 가장 숭고한 현상이다.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서 자연 속에 건축을 넣기도 하고, 건축 속에 자연경관을 만들어 두기도 하였다. 인간과 자연과 건축이 하나의 개념 속에 들어 있어야 완벽한 하나의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건축에 응용하여 건축이 자연과 하나됨으로써 천인합일(天人合一)의 도(道)에 이른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개념을 바탕으로 정원을 꾸몄으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3국이 서로 다르다.

### 1) 자연의 현척(現尺)기법으로 만든 중국정원

중국의 정원은 다양하고 현란하다. 중국 정원은 자연현상의 실물을 다양한 기법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자연 현상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장면이 다양하다. 특히 중국 강남지방에는 경이로운 절경이 많다. 자연은 물, 돌, 수목, 화초, 산, 계곡, 바람 등으로 경이로운 장면을 만들어 낸다. 중국의 정원은 이러한 장면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이로운 경관 속에 사람이 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축에 이러한 경관을 만들어 둔다. 북경 이화원에 엄청나게 큰 호수를 만드는가 하면 호수를 파면서 나온 흙으로 산을 만들고 그 속에 건축물을 세워 둔다.

주택 정원에서는 폭포가 있는 큰 연못을 두고 다리를 걸고, 연못 속에는 크고 작은 3개의 섬을 둔다. 그 물은 계류을 따라 흘러가면서 석가산과 계곡을 지나 화랑과 정자를 만난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마치 자연이 만든 것과 같은 모습이다. 비록 작은 정원이라도 작은 나무를 심을지언정 일본처럼 수목을 억제하는 분재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정원을 꾸미되 자연과 같은 규모로 만들어 자연과 천인합일을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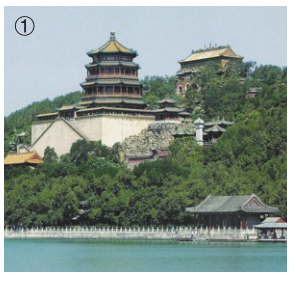


그림 1. 북경 이화원(頤和園)은 중국 황실의 정원이다. 거대한 호수와 산은 모두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자연형태를 현척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상해 예원(豫園)의 명대 정원에서는 큰 연못과 다리, 석가산이 마치 자연스러운 규모와 자연형태를 닮고 있으나 모두 꾸민 것이다.

### 2) 추상적 형식미로 만든 일본정원

일본의 정원은 함축적이고 추상적인 형식미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정원은 중국과 한국의 영향을 받아 연못과 섬을 만들고 흙으로 동산을 쌓아 수목을 심는 형식이었으나 차츰 일본 고유의 정원문화를 만들어가게 되었다. 일본의 정원에서는 연못을 만들 때 주변의 돌 하나도 그냥 두지 않고, 나무 하나도 그냥두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형태조차 인위적으로 만들어둔다. 일본의 정원은 꾸며진 자연 속에 들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관조의 대상이며, 눈으로만 보고 마음속으로 느끼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일본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고산수(枯山水, 가레산스이) 정원이다. 이 정원은 무로마치시대(1338~1473) 선종이 유행하면서 확립된 것이다. 이른바 굵은 모래, 암석, 분재를 이용하여 축소된 자연을 정적인 형식으로 만들었다. 흐르는 물과 폭포는 굵은 모래로, 섬과 육지는 암석으로, 수목은 억제된 분재로 표현하고 있다. 너무나 함축적이어서 마치 추상화를 보는 것과 같다. 그 모습 속에 자연의 상징이 녹아 들어가 있다. 자연과 인간의 천인합일보다는 마음 속으로 보는 자연을 만들어 두었다.

그림 3. 일본 교토 니죠죠(二條城)의 정원에서는 연못에 놓여진 바위와 주변의 나무 등 모두 인위적으로 놓아두거나 형태를 틀에 맞추어 꾸몄다.

그림 4. 일본 다자이후(大宰府) 고묘지(光明寺) 정원은 일본 가레산스이 정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잔자갈로 물과 파도 를, 바위로 섬을 표현하고 있다.

### 3) 자연과 동화를 추구한 한국정원

한국의 정원은 자연현상을 그대로 꾸민 듯 자연인 듯한 형식미를 추구한다. 한국의 정원은 인간조차도 자연의 하나로 생각하고 그 자연 속에 인간을 동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래서 건축, 자연, 어느 것도 주제나 부제가 아닌 모두가 주제이자 부제가 된다. 중국처럼 자연경관을 꾸미지도 않고, 일본처럼 함축하여 보기만 하는 정원도 아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만들었다. 고려시대 정원에서 그러한 특징이 많이 표현되었다. 계곡을 이용하여 물길을 다듬고, 있던 바위와 암반을 이용하여 계곡을 만들고, 그 속에 건축물을 집어넣어 자연과 건축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원 중 하나인 소쇄원에는 물을 끌어 방지(方池)를 만들고, 축대를 쌓아 나무를 심고, 담장을 둘렀지만 어느 한 곳이라도 인위적으로 만든 느낌이 없다. 마치 자연스럽게 있을 곳에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경주 독락당 계정은 자계천 관어대(觀漁臺)를 마주보고 건립했다. 마치 자연이 계정을 위해 자계천 계곡을 만들어준 것 같다. 이처럼 한국의 정원은 꾸민 듯, 안꾸민 듯 자연과 건축이 하나가 되고, 그 속에 인간과 자연이 천인합일 되도록 하였다.

그림 5. 담양 소쇄원은 계곡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정원이지만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그것이 있었던 것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경주 독락당 계정은 자계천변에 건립했다. 계정에서 바라보면 자계천을 비롯하여 관어대, 수목 등이 모두 계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이 건축과 자연경관이 어울리고 있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한 · 중 · 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 을 연재해 주신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이왕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 탐방

박 종 성 학생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연세대학교 건축학부를 다녀오다

이번 겨울방학은 어떻게 보낼까?

졸업학년이 되면 가장 큰 고민거리중 하나는 방학 때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까? 라는 주제이지 않을까 싶다.

대부분이 설계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거나 시공이나 건설회사 등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영어공부와 자격증 공부에 매진하는 것 같다. 나도 위와 같이 방학을 보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방학이 시작되고 내가 계획한 결심들은 하나하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무언가의 자극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이 때에 학교에서 제안해준 타 대학교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가보지 못한 대학교들을 가보고자 했다. 그런데 이기간은 방학이라서 '과연 방학인데 다른 학교 건축학부에서 무언가 보고 느낄 것이 있을까?' 라는 의문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탐방할 학교를 선정하는데 정말 어려웠던 것 같다. 일단 홍익대와 국민대 등은 한번 씩 다녀와 본 바가 있어서 '갈만한 곳이 있을까?' 하다가 뭔지 모르게 이끌리는 연세대로 결정하게 되었다.

연세대 건축학부를 방문하기 전에 조교실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았는데. 조교선생님은 친절하셨지만 이때 방문해도 보여줄게 없다고 하셨다. 나는 결심을 하고 연세대로 가기로 했다. '가면 연세대만 있으랴? 다른 학교도 많고 서울에는 볼거리도 많다'고 생각한 나는 거침없이 연세대로 향하였다. 연세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나는 나름 자신감이 있었는데 정문 앞에서 서서보니 웅장함에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 갈 수는 없는 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다시금 나를 추스르며 학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통화를 했던 조교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교수분이 나타나시더니 먼 길을 온 사연을 듣고서 그날 4학년 최종 크리틱이 있는데 거기 가서 조금이라도 듣고 가라고 직접 데려다 주셨다.

최종 크리틱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어벙한 모습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뜻밖의 행운에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지만 그 기대는 얼마가지 않아서 무너지고 말았다.

연세대 건축학부의 설계스튜디오는 연세우유 창고를 개조한 듯한 허름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가보았던 홍익대나 국민대 등에 비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스튜디오로 치면 우리학교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였지만 내부에서 발표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는 열의와 자부심 등이 느껴졌다.

그리고 연세대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왔던 나는 최문규 건축가와 마주했지만 처음에는 얼굴도 잘 몰라 제대로 인사도 못 했다. 스마트폰을 찾아보니 정말 최문규 건축가였다. 인사동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쌈지길을 설계하신 분을 눈앞에서 뵙다니 영광과 동시에 못 알아 본 내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크리틱 내내 최문규 건축가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과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시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았다. 또 첫인상이 무섭고 엄하게 느껴졌지만 발표하는 중간 중간에 장난스러운 농담들로 학생들이 편하게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다. 뭔가 이상적인 스승의 모습을 본거 같아서 좋았고 한번쯤은 최문규 건축사님의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고 느꼈다.

이번 탐방을 다녀오며 새로운 목표와 의욕이 생긴 것 같고 최문규 건축가와 많은 이야기를 못 나눠 본 것이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다. 막상 앞에서는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것저것 물어볼게 많은 것 같은데.. 다음을 기약 할 수 밖에...

### 2014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

–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시험일은 5월 18일 일요일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3821호, 2012.5.30〉 제7조에 따라 2014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됐다.

1. 응시자격

가.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사법」 <법률 제10719호, 2011.5.24>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 등교육법」 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건축사법」 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5.30>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 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 「건축사법」 부칙 <법률 제3242호, 1980.1.4> 제2항(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9878호, 1980.5.26> 제2항(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시험과목

가.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객관식 선택형)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 (객관식 선택형)

3.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

가. 시험일자 : 2014년 5월 18일(일)

나. 시험시간 및 장소 : 2014년 4월 30일(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 · 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4.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가. 기 간 : 2014. 2. 26(수) 09:00 ~ 3. 5(수) 18:00

나.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다. 기 타 : 응시수수료(3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5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3415-68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특별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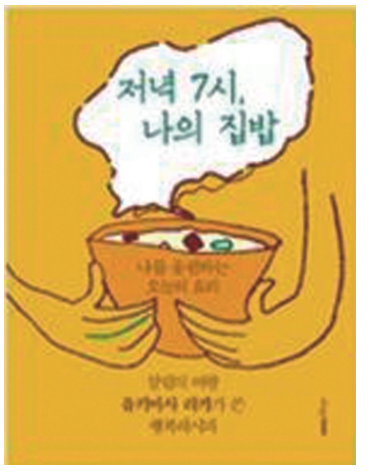
심 상 봉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소통과 배려 그리고 용서와 화해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지만 가슴 한켠 해결되지 못한 답답함이 남은 건 어떤 연유일까? 지난 해를 넘어 오면서 정리되지 못한 채로 넘어온 것은 아닐까? 혹시 가야할 길을 잃어버린 채로 넘어온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살면서 지나왔던 수많은 문들을 과감히 닫고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문으로 들어서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며칠 전 신문을 읽으며 마음에 와 닿았던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응어리진 심정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보고자 한다.




유키마사 리카의 '저녁7시, 나의 집밥' 이라는 책이다. 어느 음식점에 저자와 그의 엄마가 라면을 먹으면서 일은 시작된다. 맛있게 라면을 먹던 저자는 그릇 안에서 작은 벌레를 발견하게 된다. 놀라 젓가락질을 멈추는 것을 본 엄마는 "리카, 소란피우지마라. 이런 작은 가게에서 그런 별것 아닌 일로 소란을 피우면 아마 손님들이 들어 오질 않을거야. 그 냥 건져버리면 그만이잖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먹을 마음을 상실한 저자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엄마가 자신의 것을 건네준 덮밥도 먹을 수 없어 그렇게 식사 자리를 마칠 수 밖에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에선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점원에게 "음식에 작은 벌레가 들어갔어요"라며 귀띔하고 가게를 나섰다. 물론 점원이 돌려주겠다는 음식값을 받지 않은 채로...

이 에피소드를 소개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신경을 잘 쓴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음식에 벌레가 들어갈 수 있는 법입니다.

작은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큰일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라고 본론으로 돌아와 책에서 소개한 에피소드를 우리의 현실과 접목시켜 보았다. 수년 동안 법원과 검찰의 조정업무를 맡게 되면서 수많은 고소, 고발 사건들을 접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쉽게 화해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고발이라는 이름으로 까발려지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았다.

더러는 수많은 사람들이 sns 등을 통해 인민재판 또는 마녀사냥식으로 여론을 선동하거나 반대의견을 매도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흔히 그러한 원인들에 대해 소통의 부재니 배려의 부족이니 이기주의가 팽배했느니 등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말이 많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 결과는 서로에게 도움이되지 않는 좋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과연 고소와 고발만이 최선의 방법인가? 상대방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 없는것인가?

법조계 격언(?)에 "가장 훌륭한 판결이 가장 못된 화해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한다.

옳은 말일 것이다. 판결에 의한 해결이 이어지기 보다는 또다른 대결과 맞고소, 맞고발을 낳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수 없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키마사 리카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2014년 청마의 해를 맞으며 건축문화사랑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좋아하는 시 한편을 소개한다.

### 길을 잃으면

가만히 있어라. 네 앞의 나무와 네 뒤의 관목들은 길을 잃지 않았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든 그곳의 이름은 '여기'이니, 너는 그것을 힘센 이방인 대하듯 해야 하고, 그에게 너를 소개해도 되는지, 네게도 자신에 대해 소개해 줄 수 있는지, 그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숲은 숨을 쉰다, 들어보아라. 숲이 대답하느니,네가 네 주위에 이곳을 만들어 놓았다. 네가 이곳을 떠나면 너는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하고 '여기'가 말한다. 갈까마귀에게 똑같은 나무는 하나도 없으며, 굴뚝새에게 똑같은 가지는 하나도 없다.. 나무나 관목들이 너를 잃어버리면, 그땐 너는 정말 길을 잃는다.
가만히 있어라. 숲은 아느니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숲이 너를 찾게 그대로 있어라.

–데이비드 와그너–

편집자주) 본 지에서 심상봉 건축사를 만평 작가로 위촉하였음을 알립니다. 더불어 다른 애독자들께서도 학술, 수필, 그림, 사진, 만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 지 발행에 참여 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광주, 전남, 전북건축사회 2014년 정기총회 개최

– 광주 3월 7일 10시 신양파크호텔, 전남 3월 7일(예정), 전북 3월 12일(예정)

광주, 전남, 전북 각 지역건축사회는 오는 3월 중 2014년도 사업계획 및 감사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먼저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오는 3월 7일 10시 신양파크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심의 한다. 전라남도건축사회도 같은 날(예정) 총회를 개최하고 광주건축사회와 마찬가지로 3가지 안건 등을 상정·심의한다. 전라북도건축사회는 3월 12일 전주 완산구 오펠리스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3개 시·도 건축사회 회장 일동은 "그 어느 해보다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회원 모두의 축제가 되는 성공적이 총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건축사회, 제27회 정기총회에서 표창패 수여자 결정

– 지난 1월 이사회의에서 지역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등 선정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월 23일 제1회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제27회 정기총회에서 표창패를 수여할 대상자를 결정했다.

표창구분 및 추천 기준은 감사패와 공로패로 나눠지며 감사패는 지역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수여되고 공로패는 재임기간동안 협회발전에 기여한 임원에게 수여된다. 감사패 및 공로패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감 사 패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
| 남구청 회계과 주무관 | 최민주 | 광주시청 건축주택과 주무관 | 김춘미 |
| 동구청 건축사무관 | 서병호 | 동아인재대학교 건축과 교수 | 남승진 |
| 서구청 건축과 주무관 | 유진선 | (주)길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이길환 |

▣ 공 로 패

| 건축사회 직책/사무소 | 성 명 | 건축사회 직책/사무소 | 성 명 |
|---|---|---|---|
| 13대 회장/(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심상봉 | 부회장/(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 강필서 |
| 이 사/조형 건축사사무소(주) | 강현구 | 이 사/건축사사무소 토형 | 박형갑 |
| 이 사/나래 건축사사무소 | 이혜란 | 이 사/동원 건축사사무소 | 장동원 |
| 감 사/동신 건축사사무소 | 이광천 | | |

## 광주건축사회 공지사항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의 업무별 전화번호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 스 |
|---|---|---|---|
| 사무국 업무 전반 | 김재성 국장 | 062)521–0025~6 | 062) 528–0026 |
| 디자인 심의 업무 | 양동희 차장 | 062)521–0025 | |
| 건축문화사랑 신문 | 곽승국 대리 | 062)521–0026 | |
| 광주건축사신협 업무 전반 | 선종덕 전무 | 062)527–8890~1 | |
| 현금출납/연금관리회 업무 | 김은숙 과장 | 062)527–8890 | |
| 현금출납/업무대행 관련 업무 | 김효중 주임 | 062)527–8891 | |
| 건축공사감리협의회 업무 | 김철의 과장 | 062)527–8893 | |

※광주건축사회 김민주 과장은 출산 휴가 중임

## 광주건축사회, 2014년도 감사 선거 후보자 공고

– 오는 3월 신양파크호텔에서 개최되는 제27회 정기총회에서 선출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7일 개최되는 제27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될 2014년도 감사 선거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장 동 원 후보
동원 건축사사무소
▶1984 서강고등학교 졸업
▶1991 조선대학교 건축과 졸업
▶2013 광주건축사회 이사 역임

김 종 철 후보
영산이엔지 건축사사무소
▶1986 숭신공업고등학교 졸업
▶1995 광주대학교 건축과 졸업
▶2010 광주건축사협회 서구협의회장 역임

## 광주시서구청,주차장법 관련 적용관련 광주건축사회개선건의받아들여

– 서구청, 다른 구와 법 적용 달리해 형평성 논란야기 많은 민원 발생해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월 경 광주 서구청에 주차장법 관련 적용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여 관련법에 의거 처리하는 것으로 조치 결과를 얻어냈다.

▣ 주 차 장 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 너비 | 길이 |
|---|---|---|
| 경형 | 1.7미터 이상 | 4.5미터 이상 |
| 일반형 | 2.0미터 이상 | 6.0미터 이상 |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2.0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이륜자동차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구분 | 너비 | 길이 |
|---|---|---|
| 경형 | 2.0미터 이상 | 3.6미터 이상 |
| 일반형 | 2.3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확장형 | 2.5미터 이상 | 5.1미터 이상 |
| 장애인전용 | 3.3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이륜자동차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 서구청 적용 사례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현행대로 유지
– 또한 이기준을 적용전 기허가를 특 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신청시 이격거리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일반형(2.3×5.0m)으로 구획한 주차장을 출입구가 없음에도 벽면이나 담장에서 50cm 이 격하여 주차 구획 배치를 요구하고 있음
– 허가권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현행 법규보다 강화시켜 운영함으로써 같은 조건의 건축 허가가 서구에서만 반려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야기됨

▶광주건축사회 개선 건의 내용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현행법규에 의거 타구청과 같이 일관성 있게 운영 건의
▶ 조 치 결 과
주차장법에 의거 처리키로 하였음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현장 모니터링단 공개 모집

– 오는 2월 20일까지 우편이나 fax 통해 접수, 20세 이상 광주시민이면 지원 가능

광주광역시는 오는 2월 20일까지 건설공사 현장 모니터링단을 공개 모집한다.

광주시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알권리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 모니터링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팝업존 또는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감사관실로 우편이나 팩스(062–613–2219)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건설공사 현장 모니터링단은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안전, 교통, 환경문제 등 시민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며 건설공사 준공검사 입회 및 서명에도 참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모집인원은 100명이다. 다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시에는 교통비 성격의 실비는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 또는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하였거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토목·건축·조경 등의 기술 분야별 전문가', '건설공사 분야에 관심이 높은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감사관실(062–613–2214, 광주광역시 감사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 광주야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오는 3월 8일 개장 행사 열어

– 공사 마무리 시운전 중, 설 연휴 기간 하루 3차례 시민에 개장

광주 새 야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오는 3월 8일 개장 행사를 열고 첫 선을 보인다.

새 야구장은 2003년 야구전용구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민자유치 돔구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현실성 없어 건립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건립에 대한 시민적 논란이 가중됐다.

민선5기 들어 야구장 건립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운영되면서 야구장의 형태, 장소, 규모 등이 확정됐고,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1000억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해결했다.

새 야구장은 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했다. 2010년 '야구장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시민아이디어 공모',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한 '야구장 건립 tf팀'을 구성·운영해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기아타이거즈 선수단, 야구 관계자의 자문을 통해 2012년 5월 최종 설계를 확정했다.

또한 여성·장애인·노약자 등의 이동 약자에 대한 신체적 특성과 생애 주기 등을 고려, 체계적인 분석·평가 및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최대한 반영해 장애 없는 생활환경(bf)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시공 중 온라인에서 팬들이 요구한 관람객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모터링해 관람객의 안전성과 편의설, 시공성 등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관람객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안전 난간의 높이 조정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새 야구장은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5만 7646㎡, 관람석 2만2244석 규모이며, 2011년11월 공사를 착공해 마무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3월 8일 열리는 새 야구장 개장 행사가 시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한국건축가협회,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열어

– 광주지역에서는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에서...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접수

서울, 부산, 광주의 건축학 교수와 건축가들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를 연다.

이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생활하는 공간에 대해 이해하고 발표하는 과정이며, (사)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 사업을 받아 마련한 전국적인 학생 건축교육이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전면 실시된 주5일제 수업과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교육 중요성에 따라 수업이 없는 토요일, 학교 밖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교육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건축을 통해 생활공간을 생각하고, 강의와 답사 등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직접 제안해 본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이 지역 생활 속에서 건축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간의 소중함을 통해 행복한 삶을 스스로 마련해 가도록 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

한편, 광주지역학교(교장 신남수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2013년도에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로 구분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2014년도에는 봄학기만 운영된다. 특히 이번 봄학기는 일반과정(8주)과 가족참여과정(4회)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학생모집과 교육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지역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기간 : 2014년 3월 5일 (토) ~ 6월 21일(토) 오후 2시 ~ 6시(봄학기)
장소 :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접수 : 2014년 2월 17일 1부터 3월 5일 까지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운영방식 : 초, 중, 고 각 교급별 강좌 진행(30명 기준)
홈페이지 : www.kiagb.or.kr
접수방식 : 온라인 접수(http://me2.do/xKjW8Aqx)
카페 : cafe.naver.com/toyoarchischool
문의 :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 송명종
062)530-1999, smj7687@nate.com

## 전남 순천시, '2014 아름다운 건축상' 공모 계획 발표

– 올해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접수, 최근 4년간 사용승인 된 건축물

전라남도 순천시는 '2014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건축상은 건축문화 창달과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한 건축물 설계자 및 건축주 등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순천시 건축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응모 자격은 순천시 지역 내에서 최근 4년간 사용승인 된 건축물로 건축사, 또는 건축주가 직접 응모하거나 순천지역 건축사회에서 추천하는 작품으로 한정한다.

신청은 시 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모 신청서 1부와 건축개요·건축물 전경사진·배치도 및 평면도·설명용 패널·설명자료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출품된 작품은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건축물 생애주기(내집 CD갖기) 운동전개

– 조기정착 위해 건축사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할 것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는 건축물 생애주기(내집 건축물 CD갖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분에 한해 건축물 사용승인필증 교부 시 설계 도서를 CD 또는 USB로 담아 교부하는 '건축물 생애주기(내집 CD갖기)운동'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신축 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설계)자에게 건축설계도면이 담긴 CD 또는 USB와 공사진행상황이 담긴 사진첩을 제출토록 해 건축물 사용승인시 사용승인필증과 함께 건축주에게 CD 및 사진첩을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내집 도면(내집 CD 갖기)에 담기는 주요내용은 기본설계 도서인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와 구조도 조경계획도 및 설비도(위생, 난방, 전기, 소방, 통신) 등이며, 공사진행상황 사진첩은 기초공사, 골조공사(철근배근 등), 내부공사, 조경공사, 마무리공사, 완공모습 등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주의 편익증진과 행정력 낭비요인을 경감시키는 1석 2조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조기정착을 위해 건축사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통해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건축물을 매매할 경우도 건축물 생애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CD 및 공사진행상황 사진첩을 양수인에게 인계하도록 건축주에게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 대한건축사협회 제48회 정기총회 개최

– 오는 2월 27일 목요일 10시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감사 선거 공고

대한건축사협회 제48회 정기총회가 오는 2월 27일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기총회는 2014년도 협회 주요 업무와 관련한 내용들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2014년도 감사선거와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후보자들이 출마하였음을 공고했다.

▣ 대한건축사협회 2014 감사선거 후보자 공고

| 구 분 | 기호 | 성 명 | 사무소 명 | 기타 내용 |
|---|---|---|---|---|
| 감 사 후보자 | 1 | 신 우 식 辛 宇 植 | (주)예가 건축사사무소/충남 | 1958년생 / 1996년 입회 |
| | 2 | 정 익 현 鄭 益 鉉 | 예전 건축사사무소/충북 | 1955년생 / 1989년 입회 |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은 선거당일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하기 바람.

##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설계비 2억 3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 설계자 선정... 등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 설계비가 2억 3천만 원(공사비 기준 약 50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설계자를 선정
–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디자인·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가격 비중을 하향하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
– 설계비 2억 3천만 원 이상의 건축사업은 건축설계 발주 전에 사업 규모와 내용,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

②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체계 개선
–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
–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 결과물의 사용 권한은 1회로 제한하는 등 지적 재산권 보호
–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등 설계대가 체계 개선 ('14년 공동주택 분야 시범적용 추진)

③건축서비스산업을 미래성장 동력화
–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과 건축기술이 결합한 BIM을 활성화하여 설계·시공의 경쟁력 제고
–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건축물 대장 정보 공개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
– 우리 건축설계 업계가 활약할 무대를 넓힐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에 우리 건축사들을 홍보

④건축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사회 공공재인 건축의 가치에 대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학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건축물에 대한 투어 등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
– 우리 건축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감리를 내실화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

국토교통부는 이의 발표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올해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 시행

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기 간 : 2014.1.17. ~ 2015.1.16.(1년간)
2)대 상 :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중 건축허가 (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3)세부대상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주건축사회 동정

*** 입회**
- 박주현 건축사 / 휴앤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서하로 379(604호)
- 임정휘 건축사 / (주)세종이엔지 건축사사무소
  광주 남구 구성로 130 3층
- 김준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코플랜
  광주 서구 상무대로 721 치평동, 제일빌딩 401호

*** 전입**
- 박창수 건축사 / (주)경도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 60-20

*** 변경(소재지)**
- 최준호 건축사 / 향인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 188번길 37-1 3층

*** 결혼**
- 김정만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태건
  본인 결혼 / 2월 15일 (토) 오후1시
  마리아쥬웨딩스퀘어(구, 상록회관) 3층 베라체홀

*** 부고**
- 이주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담
  빙부 별세 / 2월 1일 (토)

## 전남건축사회 동정

*** 입회**
- 정대연 건축사 / 맹가노니 건축사사무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대죽동로 15번길 30

*** 전출(광주광역시)**
- 명성원 건축사 / 명가 건축사사무소

*** 변경**
- 최현호 건축사 / 뿌리 건축사사무소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39번길 8-1

*** 부고**
- 오병돈 건축사 / 플러스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 1월 4일

## 전북건축사회 동정

*** 입회**
- 김명국 건축사 / K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60(우아동1가, 2층)
- 오미경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휴담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60(우아동1가, 2층)
- 송일섭 건축사 / 라이프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매너머2길 11-1(충화산동2가)
- 양창근 건축사 / 양창근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27(중화산동2가)
- 김명진 건축사 / 명진 건축사사무소
  전북 완주군 용진면 완주로 194(상운리)

*** 전출(전북 ⇒ 경기도)**
- 고진국 건축사 / (주)목양종합 건축사사무소
  2014년 1월 23일

*** 폐업**
- 김완중 건축사 / (주)길 건축사사무소
  2013년 12월 18일
- 이정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양
  2013년 12월 25일

*** 변경(소재지)**
- 이동인 건축사 / 바오밥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64(효자동2가, 농협빌딩 4층)
- 임순호 건축사 / 금호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봉4길 34(효자동1가)
- 임춘오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하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325(효자동3가, 2층)

*** 부고**
- 최진호 건축사 / 우창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 2014년 1월 17일(금)

## 광주광역시 건축직 승진 인사

- 문화수도정책관실 박산
  ⇒ 동구청안전도시관리국장(4급 승진)

## 광주·전남·전북 2월지역축제안내

▶01.30(목)~02.14(금)까지 제18회 작은문화축전-전북 전주시 국립전주박물관
▶02.13(목)~02.16(일)까지 제11회 KBC 임신출산·유아교육박람회-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02.15(토)~02.15(토)까지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정월 대보름 체험행사-전남 영암군 전라남도농업박물관
▶02.16(일)~02.16(일)까지 제9회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전남 장흥군 천변체육광장
▶13.12.20(금)~14.02.23(일)까지 2013 원숭이학교 광주공연-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13.12.25(수)~14.03.02(일)까지 2014 광주 해피윈터페스티발 시즌5-광주 북구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
▶13.12.20(금)~14.03.04(화)까지 2013 여수 빛노리야-여수는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다

광주 · 전남 · 전북건축사회 신문
**건축문화 사랑 건축사 편집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구분 : 건축사 편집위원
모집인원 : 광주지역 3인, 전남지역 2인, 전북지역 1인
모집기간 : 2014. 2. 11 (화) ~ 3. 31 (월) 오후 6시까지
지원자격 : 해당 지역 건축사 회원 누구나 가능
지원방법 : 이메일 접수 / 이력서 메일(gjkira@empas.com) 전송 후 전화 확인
문 의 : Tel. 062)521-0025~6 / Fax 062)528-0026

※정정합니다!
2014년 1월호(50회) 1면과 4면에 제17회 광주광역시건축상 게재 내용중 "금상수상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 문박디엠피 박승홍, 문진호 건축사" 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 문박디엠피 박승홍 미국 건축사 문진호 네델란드 건축사" 로 정정 합니다.

※건축허가관련양식 기재란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시다.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 법 / 령 / 정 / 보

### □도시경관 본격 심의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월 7일부터 시행돼
국토 경관을 품격 있게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경관심의 본격 실시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월 28일)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하천 사업 추진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함
* 경관심의 대상: 연간 도로(17건), 철도(11건), 하천(11건) 등 39건('12년 말 기준)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함
* 경관심의 대상: 연간 주택정비사업(54건), 주택재정비촉진사업(42건), 도시개발사업(24건), 산업단지(21건), 관광단지(2건) 등 약 150건 ('12년 말 기준)
경관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사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규모 개발사업(사업면적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창의적인 디자인과 함께 사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별건축구역 :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상 규정을 완화하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남향세대 증가, 일조 침해 감소 등 사업성 증대 가능(세종시 2-2구역, 서울 신반포1차 등)
** 건축규제 완화 : 건폐율, 높이, 대지안의 공지, 조경, 일조 등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주는 '주택임대관리업' 탄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2.7공포 · 시행 예정)

○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관련>
①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규정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등록 하도록 하여 대규모 사업자들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도모
- 등록요건 :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중개사 등)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

②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절차
-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
  * 자본금·사무실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 전문인력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③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

④ 보증상품의 의무가입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상품의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시하여야 함

<기타 제도개선사항>
①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 구비요건을 현행 33㎡에서 22㎡ 이상으로 낮추어,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완화
②조합사업의 투명성 및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계약서나 사업시행계획 이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비나 계약에 관한 사항 공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윤 춘 주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 행 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 행 인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편 집 인 서재형
전담기자 곽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 · 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 제17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2014년 올해에도 창조도시 광주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훌륭한 건축작품들이 출품되기를 기대해 본다.

###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 |
|---|---|
| 정영법 제이앤케이 건축사사무소 | 500,000원 |
| 순천지역건축사회 | 350,000원 |
|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 100,000원 |

###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세상사는 느낌

## 스마트폰과 추억의 앨범

김 정 아 교육협력담당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

오늘도 나는 친구들과 밴드에 빠져서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고 안방으로 주방으로 화장실로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밴드를 확인하고 있다.

나는 얼리어뎁터가 아니다. 좀처럼 휴대전화나 전자제품 등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냉큼 구매하는 성격이 못되고, 물건이 고장이 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에 교체하며, 유행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구매하지 않는 편이다.

남편이며 아이들 모두 말짱한 2G폰 두고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었지만, 휴대전화는 통화와 문자만 잘되면 된다는 주의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었기에 내내 2G폰을 고집하다가 전화기 액정이 나가는 바람에 스마트폰 세상에 빠져들게 되었다. 지금 내게 스마트폰은 전화기의 기능보다는 거의 장난감 수준이다. 손에서 놓지 않고 수시로 들여다보며 인터넷 뉴스, 유명 블러그, 관심카페 등을 서핑 하며 애니팡의 열풍에도 합류하고 카톡과 카스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는다.

예쁘게 꾸며지거나 독특한 음식이 나오면 모양이 흐트러지기 전에 아이들과 사진부터 찍기도 하여 남편으로부터 "옛날에는 식사할 때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수저를 드는 게 아니라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변하여 애들이 사진 찍기 전에는 수저를 들면 안 되겠네"라는 우스갯소리도 들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지인들과 모임을 할 때도 밴드앱을 통해서 모임을 공지하며 여러 가지 알릴 사항 또는 좋은 글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며 문자를 대신했다. 그러던 중 작년 가을쯤에 동창 찾기 밴드를 알게 되어 초, 중, 고 동창밴드에 가입하였다. 회원이 몇 되지 않고 잘 모르는 친구들이어서 그냥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부턴가 스마트폰 알람이 '뽁뽁' 거려서 보니까 아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밴드에 찾아와 인사들을 나누고 있었다. 『응답하라 1994』의 복고 열풍의 영향일까? 그리운 친구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여 드디어 오프라인 만남도 가졌다. 초등학교 친구는 친한 친구 외에는 생각이 잘 안 났는데 밴드에서 대화로 근황도 알고 있고 얼굴도 익혀 34년만의 동창회에도 어색하지 않게 아주 오랫동안 만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고, 서울·경기·전북·여수 등 원거리에서도 친구를 만나기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더욱더 친근감이 느껴졌다.

중학교 친구들도 오프라인에서 만나 다음 정기모임 때에는 학교 때 은사님도 모실 계획을 세웠고, 전국 각지에 사는 친구들이 광주에 온다하면 그때그때 번개모임도 한다. 머릿속 어딘가에 밀려나 있는 추억을 빨리 꺼내고 얼굴 리모델링한 친구를 빨리 알아보기 위해 번개 모임 때 마다 그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누렇게 빛바랜 졸업앨범과 친한 친구끼리 찍은 사진 몇 장도 잊지 않고 챙겨오며, 친구들끼리 만나면 우리는 어느새 여중생이 되어 있었다. 이번 명절에도 멀리 사는 여중 친구들이 친정 나들이를 하여 번개모임을 했는데, 친구들과의 만남과 수다로 힐링이 되어 명절 스트레스가 싸~악 날아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또, 연휴동안 시댁과 친정을 오가느라 시간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짬을 내어 서울 사는 여고동창들과 시간되는 친구들만 밤중에 잠시 얼굴만 봤는데도 너무 행복했고 짧은 만남의 시간이 아쉽기만 하였다.

지금 40대 후반인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집안도 안정되어 가면서 벌써 친구를 찾을 나이가 되었나 보다. 동창밴드 덕분에 많은 친구를 만나게 되어 좋고 또 그리운 친구가 들어오기를 기대하며 지내는 것도 즐겁다. 하지만 밴드에 푹 빠져서 다른 일에 집중을 할 수 없다거나 예전 아이러브스쿨의 부작용이 재발되면 안 된다. 동창밴드 장수를 위하여 밴드 11계명도 있다. 특히 남녀 친구간 만남이나 음주 등 밴드예절을 잘 지켜 우리가 백발이 되어서도 빛바랜 졸업앨범을 꺼내들고 동창밴드 친구들끼리 만나서 추억을 이야기하며 지냈으면 좋겠다. 나도 이제는 밴드 알람을 무음으로 설정해 두고 가끔씩만 열어봐야겠다. 나의 밴드생활 장수를 위해서...

한편의 시

## 봄봄봄

김 영 란 주부
광주 광산구 수완동

으르렁쩍 으르렁쩍
얼음 깨지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개구리 한 마리
우리집 앞마당 장독대 위 설잠을 잔다

우리 아기 따뜻한 봄바람에
기분 좋아 새근새근 잠들게 하고

옆집 순이는 노오란색 짧은 치마 둘러
옆동네 철이 가슴을 콩닥콩닥하게 한다

우리 남편 가져다 준 개나리에
처음만난 그 순간 떠올라
내 마음 처녀마음 두근두근

우리 아비 어미 두 손 마주 잡고
동네 들녘 훈훈한 봄바람 마실 나갈 때

내 서방 숨겨놓은 쑥떡 하나
내어주니 얼씨구나 박수치며
내 입에 하나 서방 입 하나

봄봄봄 만물의 생명
잠에서 깨게 하는 마법의 힘이
온 세상 뒤 덮는 구나

그런 계절님이 또 오시는 구나

생활 속 정보

## 「AI 차단 · 방역 수습현장의 땀방울」

김 정 훈 겸임교수
동신대학교 / 영광소방서

AI 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이에 따른 방역대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도 소방관으로서 소방차에 물을 가득 싣고 AI 방역현장에 급수지원차 운행하였다. 설 명절임에도 방역현장에서는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일반적으로 재난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을 크게 자연적 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 그리고 장소적 구분으로 해외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AI(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라는 세균성 질병으로서 생물학적 재해에 해당하기에 일반적으로 자연재난으로 볼 수 있다.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난으로도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관리조직체제로 심의기구 및 수습기구의 긴급구조기구, 그리고 상설 재난관리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AI는 조류라는 특수한 세균성 질병을 오리나 닭 등에게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의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농가의 반입물품과 차량소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차량은 소독시설을 통과하여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또한 도보 방문시에도 설치된 발판소독조를 반드시 이용하고 철새의 시체나 배설물 등을 밟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AI 방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반드시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의 현장을 기약하리라 확신한다.

건축사 Gallery

참 멋드러진 전경이다. 해안선을 따라 가파른 기슭에 들어선 집들은 목포의 또다른 모습이다.
그 옛날 아버지가 술기운을 빌어 부르셨던 "미아리 눈물고개 ..... 님이 떠난 이별고개 .." 한 많은 피난살이 설움도 많아 그래도 잊지못할 판잣집이여 ... 이별의 부산정거장 "서울의 미아리, 부산의 판잣집이 개발이라는 이유로 대규모의 건축물로 변화되고 있다. 목포의 산 기슭에 자리집은 집이 변화라는 이유로 없어져 버릴까 하는 아쉬움은 그런 연유일까 싶다.

유민 건축사사무소 박 종 호 건축사

사진속 이야기

**절묘한 조화**

완산8경 비비락안(飛飛落雁:한내변 비비정에서 바라보는 한가로운 기러기들)의 비비亭 근처의 한정식 식당의 모습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메주처럼 상상이상이다. 가장 자신 있는 자기만의 음식을 모아 시골밥상을 만들어 인생 황금기를 보낸다며 함박웃음을 짓는 건달 할머니들의 모습에서 나의 미래를 꿈꾸어 본다.

엘 건축사사무소 윤 종 환 건축사

▲기존 무등경기장 종합 운동장의 성화대를 존치

▲시민참여프로젝트로 놓여진 바닥돌

▲외야석 7번~8번 출입구 방향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입구

▲3루석 5번 출입구 입구 방향

# 미리 보는 '광주 - 기아 챔피언스 필드'

## – 광주 새 야구장, 오는 3월 8일 개장 행사 열어 시민들에게 선보여

▲새야구장 안내도

▲야구장 외부 곳곳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다

▲외야석에는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다

▲보행 공간이 넓게 설계되어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1루석 1번~2번 출입구 방향

▲3층 내야석에서 바라본 필드

▲내야석 3번~4번 출입구 방향

▲새 야구장은 장애 없는 생활환경(bf)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태양열 에너지 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아직도 어떠한 자재를 쓸 것인가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축 내외장재 선도업체 **동일교역**이 해결하겠습니다.

동일교역(주)

http://dongil-stone.co.kr

항상 동일교역을 성원해 주신 고객 및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사. 물류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5번지
Tel. 062-361-6243, 061-382-0681
Fax. 061-383-6248

서울사무소 : Tel. 02-576-5234